

-(으)련만

~할 텐데 (그렇지 못하다)

사실이 아닌 일을 바라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을 때 씁니다. 더 나은 결과를 가정했다가 현실과 대비시키는 문어적 어미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련만	하다 → 하련만
자음으로 끝남	-으련만	있다 → 있으련만
ㄹ로 끝남	-련만	살다 → 살련만
줄이지 않은 형태	-(으)련마는	있으련마는
주로 앞에 오는 것	-(으)면, -았더라면	돈이 있으면 ...
실제 일어난 일	-건만	기다렸건만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어간에는 -련만, 자음 어간에는 -으련만을 붙이고, ㄹ 어간에는 아무 것도 더하지 않습니다: 살련만. 줄이지 않은 형태는 으련마는입니다.

앞 절은 어떤 조건에서라면 그럴일을 말하고, 뒤 절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전합니다: 돈이 있으면 도울 수 있으련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.

앞에는 거의 언제나 조건이 옵니다. -(으)면 또는 -았/었더라면 등입니다. 어미는 바람을 담고, 조건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.

-건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한탄하는 것과 달리, -(으)련만은 일어날 법 한데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한탄합니다.

■ 예문

- 1 형편이 나으면 도울 수 있으련만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.
- 2 비만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련만.
- 3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으련만.
- 4 가까이 살면 자주 뵈 수 있으련만 거리가 너무 멀다.
- 5 시간이 있으면 직접 만들련만 요즘은 여유가 없다.
- 6 봄이 오면 꽃도 피련만 아직은 겨울이다.

■ 비교

-건만
반드시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-건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한탄하고, -(으)련만은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는 일을 한탄합니다.
기다렸건만 오지 않았다. (기다렸는데도) / 시간이 있으면 가련만. (가고 싶지만 못 감)

-았/었더라면
둘은 함께 쓰입니다. 더라면은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제시하고, -(으)련만은 바람과 실망을 담습니다.
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으련만.

-(으)면 좋겠다
-(으)면 좋겠다는 바람을 솔직하고 희망적으로 말하고, -(으)련만은 이미 이를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바람을 말합니다.
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. (시간이 있기를 바람) / 시간이 있으면 가련만. (갈 텐데 시간이 없음)

■ 주의

- ✗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으련만 다행이다.
- 시간이 없어 갈 수 없다. 시간이 있으면 가련만.
이 어미는 현실이 가로막은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. 바람이 이루어진 결과가 오면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.
- ✗ 어제 기다렸으련만 오지 않았다.
- 어제 기다렸건만 오지 않았다.
기다린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므로 어미는 -건만이 맞습니다. -(으)련만은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합니다.
- ✗ 야, 시간 있으면 가련만.
- 야, 시간 있으면 갈 텐데.
-(으)련만은 문어적입니다. 대화에서는 -(으)ㄹ 텐데가 같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.